



워싱턴문인회 월간 소식 2025년 5월

Vol. 1, Issue 15

A Monthly Publication of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Washington

<시를 살아가는 몇 가지 방식_김이듬>

시란 무엇일까? '시란 무엇인가'라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최근 시인들의 짧은 답변이 들어있는 사집을¹⁾ 보자. "시는 머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것"(김연덕), "시는 작아지지 않는 슬픔, 그걸 좋아서 청병처럼 덤비는 일"(박연준), "시는 소음 속에서 침묵하는 존재들이 나누는 손짓"(조은유), "시란 기필코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다"(박철), "시란 오고 있다고 믿는 것"(손미), "시는 신발, 우리를 세상의 끝으로 데려가는/시는 탐색건의 고, 한 사람의 실종을 집요하고 용맹하게 추적하는"(안희연), "시는 내년 겨울 내가 주머니에 넣어둔 것"(임솔아), "시란 세상을 아주 느리게 다시 쓰는 것"(정다연), "시란 비명과 정적"(신이인) 그리고 "이상적으로 망가진 세계"(김이듬) 등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시는 알이고 구원이며 힘이고 포기다. 시의 기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시작 행위는 본래 혁명적인 것이지만, 정신의 수련으로써 내면적 해방의 방법이기도 하다. 시는 이 세계를 드러내면서 다른 세계를 창조한다. 시는 선택받은 자들의 병이 저주받은 양식, 격리시키면서 결합시킨다. 여행의 초대이자 귀향, 들숨과 날숨이며 근육 운동이다. 공을 향한 기원이며 무의 대화. 그 양식은 권태와 고뇌와 절망. 기도이며 단원이고 현현이며 현존. 악마를 쫓는 주문이고 맹세이며 마법. 무의식의 승화이자 보상이고 용접. 계급과 국가, 인종의 역사적 표현이며 역사를 부정. 시 속에서 모든 객관적 갈등들이 해소되고 인간은 마침내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것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을 얻게 된다. 경험이며 느 낌이고 감정이면 직관이고 방향성이 없는 사유. 무언에 소산이자 계산된 결과다. 세련된 형식을 사용하여 말하는 기술이자 원시적 언어. 규칙에 복종하며 동시에 다른 규칙들을 창조. 선대를 흉내내는 것이며 실제의 모방이고 아이디어의 모방에 대한 모방. 광기이며 황홀경이고 로고스.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며 성교이고 낙원과 지옥 그리고 연옥에 대한 항수. 놀이고 노동이며 금욕적 행위. 고백. 교육이자 도덕이고 계시며 춤이고 대화하며 독백이자 민중의 목소리이자 선인의 언어이고 고독한 자의 말이다. 순수하면서 순수하지 않고, 신성 하면서도 저주받았고, 다수의 목소리면서 소수의 목소리고, 집단적이면서 개인적이고, 별거

1) 『우리를 세상의 끝으로』 (문학동네시인선 2007년 11월 11일, 2023.)

목차 (What's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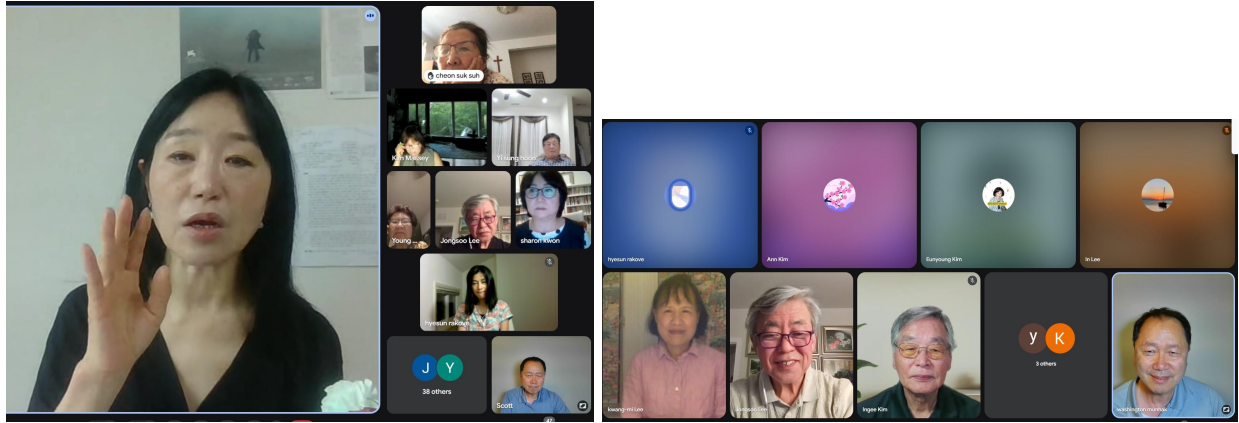
워싱턴 문인회 5월 김이듬 시인 초청 강의	1
♡ 글사랑방 모임 & 문학회 소식 ♡	
시 문학회 시	2
수필 문학회 Essayists	2
영 문학회 English Writers:	3
소설 문학회 Novelists:	
미주 한국일보에 소개된 문인회원의 글	3
이 달의 추천 도서	4
워싱턴 문인회 YouTube 채널	4
회비납부 안내 및 월 재무 보고	5
2025년 Calendar & Upcoming Events	6
워싱턴문인회 2025-2026 임원단	
7	

워싱턴 문인회 5월 김이듬 시인 초청 강의

워싱턴문인회는 5월 김이듬 시인 초청 강연과 함께 봄을 맞이하였다. 줌 (Zoom)으로 열린 강의는 시에 대한 고찰로 부터 시를 쓰는 방법과 절차 등의 실용적인 강의로 이어졌다. 강연은 워싱턴문학출판을 앞둔 문인회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문인회는 시향 출판준비에 이어 문인회의 꽃인 워싱턴 문학 출판 준비로 바쁜 5월을 보내었다. 겨울에 있을 출판 기념회에 맞추어 워싱턴 문학 28호를 정성껏 꽃피울 예정이다.

♡ 글사랑방 모임 & 문학회 소식 ♡

시 문학회 Poets



지난 5월 15일 김이듬 시인을 모시고 “시를 살아가는 몇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초청 강연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일대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60여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글 사랑방’이 지난 5월20일(화)에 열렸고, 11분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편의 작품에 관한 합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 워싱턴 원고가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과 카톡으로 공지 하겠습니다.

2025 시향이 인쇄에 들어 갔습니다. 오는 7월5일 출판 기념회를 준비중 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과 카톡으로 공지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해주신 권귀순, 박양자, 김인식 선생님 그리고 강혜옥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필 문학회 Essay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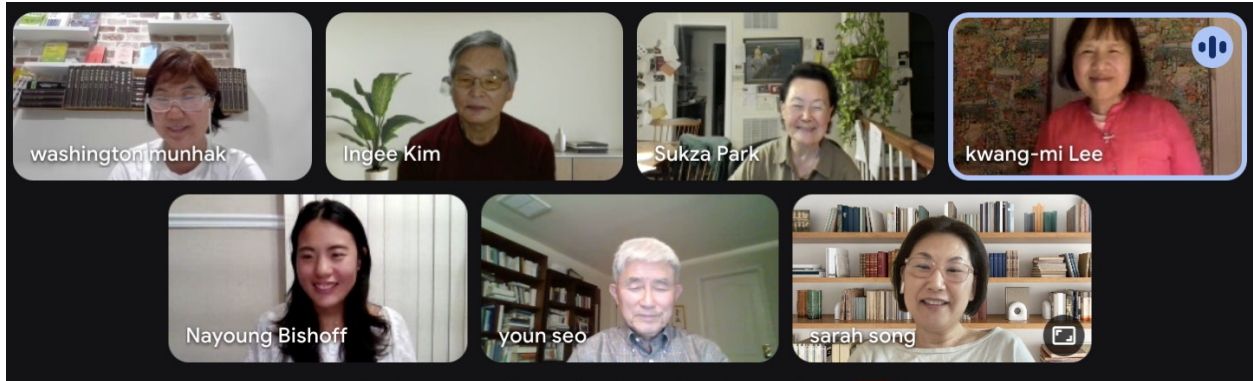
5월 수필문학회

모임 일시: 2025년 5월 17일

참석자 (총 11명):

이성훈, 유양희, 김레지나, 문영애, 최규용, 김용미, 노순이, 김인숙, 석민진, 이영미, 조형자
이번 모임에서는 총 7분이 작품을 제출하였으며, 각자의 글에 대해 합평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글을 쓰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 문학회 English Writers:



The English Writers Group held its monthly meeting via Google Meet on May 24, 2025, from 7:00 to 9:00 PM. Eight members attended, including one from Korea and another from Georgia. Seven members submitted a variety of works, including a novella, poems, sijo, an essay, and a memoir.

To ensure fairness and make efficient use of time, each participating member was allotted 15 minutes. This format proved effective, and all participant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structure.

As always, the group engaged in thoughtful discussion and offered valuable feedback.

Looking ahead, contributors to Songs in a Second Language are scheduled to present readings of their work at the Arts Club of Washington on **June 26, 2025, at 1:00 PM**. This is a much-anticipated and exciting event, and full participation from all members is expected.

Our next regular meeting will take place on **June 28, 2025, from 7:00 to 9:00 PM via Google Meet**.

소설 문학회 Novelists:

소설문학회는 5월에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소개된 문인회원의 글

- [생각하는 숲](#) 2025.05.23 | 서윤석 작가 (의사신문)
- [이화여대, 제 1회 김.르노 \(Kim-Renaud\) 인문과학 연구상 시상, AI와 인문학의 융합 조명](#) 2025. 05.28 | 김영기 작가 (만나24뉴스)

문인동정(動靜)



김경숙 작가님의 자녀 (신부) 결혼식 (6/14) 소식이 아름다운 사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신랑 신부를 축복하며 따뜻한 축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이달의 추천 도서는 Anamely Salgado Reyes 작가의 [My Mother Cursed My Name](#)
멕시코 아메리칸 여성작가의 책으로 펠리시타스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삼세대에 걸친 이민 여성들의 세대 갈등과 치유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쓴 소설로
이민자의 삶을 시적인 요소를 담아 가슴 뭉클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워싱턴 문인회 YouTube 채널

[워싱턴 문인회 유튜브 채널](#)

회비납부 안내 및 월 재무 보고

워싱턴 문인회는 버지니아주 정부에 등재된 비영리 단체로서, 찬조 및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락이나 착오가 발견된 경우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납부 안내:

Pay to Order: **K.L.S.W.** 또는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Washington**

보내실 주소: **Kyung-Suk Kim** (김경숙 재무)

7809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문의: kkim5397@gmail.com

***5월 총 수입: \$495.00**

[상세내역]

2025 연회비 납부자: 임종희 \$120 (#5183)

도네이션: 정혜선 \$50 (#589) - 김이듬 시인 강의료에 도네이션

김경숙: \$25 (#40130) - 김이듬 시인 강의료에 도네이션

김영실: \$300 (#7889)

***5월 총 지출: \$375**

[상세 내역]

김이듬 시인 강의료 \$300 (\$375: 정혜선, 김경숙 \$75 도네이션 해서 \$375 불

보내

드림)

*총 잔액

\$7645.45 + 120=\$7765.45

*이월액:\$7765.45(장부 금액)

* 은행 잔고: CD 1 ;\$15793.19(항아리 기금)

CD 2 ;\$ 10486.84

SAVING :\$5354.63

CHECKING :\$92988.02

- 연회비나 당일 회비를 내실 때는 현금이나 체크를 편지 봉투에 넣으신 다음에 꼭 본인 이름(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 현금이면 현금이라고 쓰시고, 체크는 금액과 체크 번호를 써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Calendar & Upcoming Events

1/18	신년 하례 및 신임회장단 취임식 고문단 /이사회 대표선출	7월	여름 휴가
2월	각 문학회별 작품 합평 모임 시향 원고제출 안내	8월	각 문학회별 작품 합평 모임
3월	1. 워싱턴문학 WEB사이트에 내 작품 올리기 2. 각문학회별 작품합평모임	9월	1.가을문학기행 2.신인문학상광고 3.마감일자:10/31
4월	각 문학회별 작품 합평 모임	10월	열린낭송의 밤
5/31	워싱턴 문학 작품제출 마감	11월	문인회 총회
6월	시향 출판기념회	12월	워싱턴 문학 출판기념회 신인문학상 시상 및 송년파티

워싱턴문인회 **2025-2026** 임원단

회장: 강혜옥

부회장: 서윤석, 최은숙

수필문학회장: 이성훈

시 문학회장: 윤석호

소설 문학회장: 박숙자

영 문학회장: 이광미

총무: 노순이

미술 & 사진: 황보 한

편집장: 서나영

재무: 김경숙

웹사이트 관리: 정혜선

유튜브 채널 관리: 김은국

감사: 손지아